

- 주요 뉴스: 연준 파월 의장, 신속한 금리인하 불필요, 당분간은 관망의 자세가 적절
 - 이란-이스라엘, 일부 미사일 공격 발생했으나 양측은 대체로 휴전 제안 수용
 - 미국 트럼프, 중국은 이란産 원유 구입 가능. 6월 소비자신뢰지수는 전월비 하락
 - ECB 주요 인사, 연내 추가 금리인하 가능.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접근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이란-이스라엘 휴전, 연준 의장의 의회 발언 등이 영향
 - 주가 상승[+1.1%], 달러화 약세[-0.5%], 금리 하락[-5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중동 우려 완화, 국채금리 하락, 기술주 강세 등으로 상승
유로 Stoxx600지수는 중동 사태 개선 등으로 1.1%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안전자산 선호 약화, 인플레이션 우려 감소 등으로 3년래 최저 근접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3%, 0.8%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부진한 6월 소비자신뢰지수 등이 배경
독일은 국방비 증액 계획, 양호한 6월 Ifo 경기기대지수 등으로 4bp 상승
- ※ 뉴욕 1M NDF 증가 1356.6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359.0원, 0.09% 하락). 한국 CDS 하락

		6/24일	6/23일	전일대비			6/24일	6/23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092.2	6,025.2	+1.11%	국채 금리 10y	미국	4.29%	4.35%	-5bp
	유럽	540.98	535.03	+1.11%		독일	2.54%	2.51%	+4bp
	중국	3,420.6	3,381.6	+1.15%		영국	4.47%	4.49%	-2bp
	일본	38,791	38,354	+1.14%	CDS 5y	한국	27bp	28bp	-1bp
	한국	3,103.6	3,014.5	+2.96%		중국	50bp	53bp	-3bp
환율	달러지수	97.96	98.42	-0.46%	위험 지표	EMBI+	-	379	-
	유로화	1.1609	1.1578	+0.27%		VIX	17.48	19.83	-11.85%
	엔화	144.94	146.15	+0.83%		WTI유	64.37	68.51	-6.04%
	위안화	7.1716	7.1789	+0.10%	원자재	구리	487.3	485.0	+0.47%
	원화	1,360.2	1,384.3	+1.77%		금	3,323.7	3,368.5	-1.33%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ì.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연준 파월 의장, 신속한 금리인하 불필요. 당분간의 관망의 자세가 적절

- 파월 의장은 하원 재무위원회에 참석하여 인플레이션 압력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발언. 다만 지금은 경제가 여전히 양호하기에 그러한 조치가 필요 없으며, 현 상황에서 특정한 시기에 금리인하가 가능하다고 언급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
- 또한 관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요인들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당분간은 기다리면서 가능성 높은 경제 경로에 대해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피력. 아울러 최근 경제 지표들은 금리인하 시나리오를 지지하지만, 다수의 경제학자들이 물가상승을 예상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첨언
- 애틀랜타 연은의 보스틱 총재는 안정적인 고용 여건과 관세 인상에 따른 기업의 제품가격 인상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금리인하는 좀 더 기다려야 한다고 언급. 뉴욕 연은의 윌리엄스 총재도 현행 통화정책이 적절하며, 금리인하가 임박한 상황이 아니라는 의견 제시
- 전문가들은 파월 의장이 이전보다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에 주가의 추가 상승 여지를 제공했다고 분석(Karobaar Capital). 다만, 정책 조정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월러 이사의 7월 금리인하 지지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보다 균형이 잡힌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평가(Evercore ISI)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이란-이스라엘, 일부 미사일 공격 발생했으나 양측은 대체로 휴전 제안 수용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발표 이후, 이란은 휴전 합의는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스라엘이 공격을 중단하면 자신들도 군사 대응을 멈추겠다고 발표. 이란 페제시키안 대통령도 국제 규범에 따라 미국과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언급.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 원자력 프로그램에 대한 신속한 조사 재개를 촉구
-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제안에 동의하며, 이란의 미사일 위협을 없애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언. 다만 카츠 국방장관은 이란이 정전 규정을 위반하고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에 강경 대응을 명령했다고 강조. 다만 이란은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다고 주장

■ 미국 트럼프, 중국은 이란産 원유 구입 가능. 6월 소비자신뢰지수는 전월비 하락

-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휴전 발표 이후 이제는 중국이 이란産 원유를 매입할 수 있다고 게시. 이번 조치로 미국 측이 준비했던 對이란 제재를 보류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었고, 국제 유가는 큰 폭 하락
- 한편 6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는 93.0을 기록, 전월(98.4) 대비 하락. 관세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 4월 코어로직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는 전년동월비 3.4% 올라 전월(4.1%)에 비해 상승세 둔화

■ PIMCO 설립자 빌 그로스, 미국 국채 투자 조심할 필요. 증시는 강세장 기대

- 빌 그로스는 인플레이션 압력 위협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미국 국채 투자에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평가. 다만, 증시의 경우 AI의 발전과 꾸준한 경제 성장 등을 고려한다면 일정 수준의 강세장이 가능하다고 진단. 한편, JPMorgan은 아시아 주요 기술주의 주가가 연내 15~20%의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분석

■ ECB 주요 인사, 연내 추가 금리인하 가능.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접근

-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드 갈로 위원은 인플레이션 안정으로 연내 추가 금리인하가 가능하다는 의견 제시. 레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근접했다고 밝혔으며, 권도스 부총재는 중동 갈등으로 인한 유가 상승이 역내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
- 한편, 독일 6월 Ifo 경기기대지수는 90.7로 `23년 4월 이후 최고치. 이번 결과는 경제가 장기간의 정체에서 마침내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

■ 일본 총리, 현금 지급 추진. 6월 제조업 PMI·5월 슈퍼마켓 판매 등은 개선

- 이시바 총리는 집권 자민당 공약으로 전국민 현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발표. 이는 7월 참의원 선거를 대비한 조치로 평가. 한편, 6월 제조업 PMI는 50.4로 전월(49.4) 대비 상승하며 12개월 만에 확장의 기준 50을 상회. 5월 슈퍼마켓 판매는 전년동월비 4.6% 증가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6/25일 현지시각 기준)

- 연준 파월 의장 의회 발언, 미국 5월 신규주택판매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연준, 유가 충격에 의한 인플레이션 기대보다 실물 지표 중시할 필요 - 블룸버그

(Bernanke consensus on oil shocks is truer now)

- 유가 우려가 진정되면서, 금리인하의 걸림돌 가운데 하나였던 요인이 해소. 현대 경제학은 일시적 공급 충격에 통화정책 대응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 그러나 최근 연준 논문에서는 인플레이션 기대는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어, 유가 등 공급 충격이 이를 자극하여 장기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
- 이러한 의견은 최근 연준이 금리인하를 유보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다만 인플레이션 기대는 신뢰도가 낮기에 근원물가 등 실물 지표에 기반을 둔 정책 판단이 적절. 한편 최근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증가 등 고용 둔화 징후가 감지되고 있어, 연준은 9월 혹은 그 이전의 조기 금리인하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

■ 원유시장의 공급 과잉, 이스라엘-이란 휴전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 예상 - 블룸버그

(Ceasefire or Not, The World Is Swimming in Oil)

- 최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완화되면서 국제유가는 가파른 하락세로 반전. 다만 이러한 결과에는 원유시장에서의 공급 과잉도 기여. 실제로 석유 소비 증가율은 매우 부진하며, 특히 이는 중동에서 더욱 뚜렷하게 진행. 그러나,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는 공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 중동 산유국들의 증산 합의와 각국의 6월 예상 생산량(사우디아라비아: 960만배럴/일, 2년래 최대 등) 증가는 공급 과잉 심화 전망을 뒷받침. 이라크와 UAE의 최근 원유 생산은 당초 계획 수준을 상회. 아울러 배럴당 55달러 이상에서도 채산성이 보존되는 셰일과 트럼프의 저유가 선호 등은 공급 과잉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

■ 미국의 이란 공격, 경제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킬 가능성 - WSJ

(U.S. Attack on Iran Injects Uncertainty Into Already Uncertain Economy)

- 미국의 이란-이스라엘 분쟁 개입은 관세·이민 정책으로 이미 높아진 경제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되는 결과 초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스라엘의 휴전을 발표했으나 이란 정권교체 논의 등 혼란이 지속. 경제 불확실성지수는 장기 평균의 4배까지 급등
-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시행하지 않아 유가는 안정적. 하지만 향후 유가가 10% 상승한다면, 개인소비지출지수가 0.04%p 상승하고 배럴당 10달러 인상 시 GDP 성장률이 0.1%p 하락할 것으로 예상. 한편 연준 인사들 간에도 금년 금리인하 횟수에 대한 이견이 확대되고 있어 향후 통화정책 결정은 더욱 복잡해질 소지

- **신흥국 금융시장, 분산투자 확산 등으로 투자 성과가 선진국 시장을 능가 - Financial Times**
(Emerging markets defy investor gloom to outshine developed world)
 - 연초 이후 JP모건 신흥국 채권지수와 MSCI 신흥국 주가지수 모두 10% 올라 MSCI 선진국 주가지수 상승률(4.8%)을 크게 상회. 개발도상국이 무역전쟁 최대 피해국이 될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 달리, 투자자들이 예측이 어려운 미국 정책에 대한 우려로 달러화 자산 축소를 통한 분산투자를 강화하면서 신흥국에 대한 관심이 증가
 - 또한 달러화 약세로 신흥국 통화 압박이 완화되고 금리인하 여지가 확대된 점도 긍정적. 한편 주요 신흥국의 실질금리가 20년 만에 최고 수준에 있다는 점은 채권투자에 유리한 여건 조성. 과거에는 신흥국 부채가 투자 제약 요인이었으나 현재는 미국 재정적자 우려 심화로 신흥국 부채 우려는 상대적으로 제한적
- **미국의 이란 공격, 증오 범죄·사이버 공격 등의 자국 내 보복 우려 증폭 - WSJ**
(Trump's Iran Attack Spurs Concerns of Retaliation in the U.S.)
- **미국의 무역불균형 문제, 자본유입에 대한 과세로 접근할 필요 - Financial Times**
(Why global imbalances do matter)
- **미국 트럼프의 TACO(위협 후 철회), 이란 대응은 달랐으나 관세 부문은 유효 - Financial Times**
(Last call for Tacos?)
- **이란-이스라엘 휴전, 양국의 적대감 등으로 일시적일 가능성 - Financial Times**
(Trump's fragile peace in the Middle East)
- **유럽의 국방력 강화, 동맹국과의 공동 생산 등 협업이 중요 - Financial Times**
(Europe should not go it alone on defenc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